

정보화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



국회의원 南宮 哲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우

리는 혁명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패러다임이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급격하게 대체되는 거대한 정보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산업화의 물결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하여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1960년을 우리나라 산업화의 원년이라고 한다면, 1760년대에 시작한 서구에 비하여 200년, 1858년 서구 5개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산업화로 매진한 일본에 비하여 100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이 산업화의 시간차는 우리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고난의 세월로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정보화의 물결만큼은 우리가 선도하여 향후 100년의 역사를 번영의 세월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국가를 막론하고 정보화에 편승하는 자는 번영하고, 그

렇지 못한 자는 나오할 것입니다.

정보화는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융합된 정보기술(IT)에 의하여 공간과 시간을 확대하고 보통 사람이 빛의 속도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파괴력은 정치·경제·사회·교육·국방·외교는 물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이제 이 물결을 따라 잡는 것


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 남기 위한 생존조건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보건복지정책도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평균적인 정책이 아닌 1대1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정책은 가상의 평균인만을 만족시키지, 다양한 특성을 지닌 모든 사람과 집단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1대1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성장은 실시간 무한

대의 정보배포 및 수집기능을 가능하게 하여 맞춤형 보건복지정책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난해 의약분업의 실시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퇴색시켰습니다. 진찰과 조제의 분리로 국민이 겪은 혼란이 큰 문제였는데, 사전에 의료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 국민들의 불편은 훨씬 감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약국을 VAN시스템으로 연결하고 병원간에 각종 진료자료와 정보가 공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제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신시스템을 만들고 정보화 방향을 정립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기반을 정보화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보건복지정책도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여
평균적인 정책이 아닌 각각의 특성에 맞는
1대1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